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안팎으로 많은 재난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칫 방심하면 큰 화를 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재가 아닌가 싶다.

지난 12월 4일의 남대문 시장 내 대도마켓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픈 기억을 더듬어 본다.

나는 남창동 52번지, 그러니까 남대문시장내 남도종합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1988년 초 겨울 어느날 이른 새벽 멀리 있는 친척으로부터 시외 전화가 걸려왔다. “방송을 들으니 남대문시장에 불이 났다는데 혹시 자네 상가가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정작

가까운 우리는 몰랐어도 멀리 있는 친지들이 먼저 알고 전화를 해주었다. 황급히 달려가 본 화재 현장은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내 상가, 내 점포가 불타고 있었다. 초겨울의 삭풍이 몰아치는 화재 현장의 불길은 건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갔다. 옆건물의 입주자들은 나름대로 불길이 번져가지 않기를 바랐고 우리는 아예 상품을 꺼내올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불길은 거세었다. 더구나 도매상가이기 때문에 상품을 쌓아 놓은 창고까지 있었으니 그 피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화재 사건을 많이 보아왔지만 정작 내가 직접 당할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봤

던가!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화재 사건이 내 일이 되고 말았다.

모든 재화(財貨)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년 가까이 실직을 감수해야 했다. 내 점포만이라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서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고 말았으나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우리 상가의 화재 원인은 냉동용 냉장고에서 스파크 현상으로 발화됐다는 당국의 진단이었다. 그런 발화 요인이 잠재해 있는 곳에는 상품 적치를 삼가하고 미리 경계를 강화했어야 했으나, 워낙

## 화협 광장



강 장 원  
〈서울 송파구 오금동 19〉

좁은 공간이다 보니 한치의 공간도 아쉬운 것이 도매상가의 약점이 된 것이다.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무려 10시간 이상이나 소요됐다. 날씨도 쌀쌀한 초겨울에 거의 다타버린 잿더미속에서 마치 보물 찾기도 하듯이 현금과 수표 또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찾기 위해 난리를 피웠다.

또 타다남은 잿더미 속에서 쓸만한 상품들을 찾느라 호미와 삽이 동원되기도 했다. 지붕이 내려앉아 자기 점포의 위치 측정도 쉽지 않았다. 타다 남은 상품을 길거리에 내놓고 팔기도 했으나 연기에 그을리고 열에 녹아서 거의가 상품가치 없는 쓰레기로 변해 있었다. 특히 내 점포가 완전 전소되어 하나도 건질 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맞은편 점포들이 모두 화학섬유나 면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양말, 내의, 의류 등을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점과 폐점시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철제 셔터를 사용하지 않고 천으로 덮어만 냈기 때문에 주위로 번져가는 불길의 여파도 더욱 컸으리라고 본다. 어쨌든 상가내에서도 내 점포의 주위 부분이 유독히 완전 전소됐으며, 지붕도 주저앉아 있었다.

화재를 당한 상인들이 추운 겨울 시장터 노점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일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가를 체감했다. 재화가 재로 변해 버린 것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잔해물들을 치우는 것도 문제였거니와 버리는 데도 문제였다. 그리고 다시 복구하여 입주하기까지는 일

년 가까이나 소요됐다. 화재후 온갖 루머도 많았지만 알고 보면 사전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세입 점포주들은 각자의 건물주들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결국은 다 같은 피해자이고 보니 묵살되고 말았다. 재입주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자위하면서 어렵사리 꾸려가는 것을 보면 역시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간다는 걸 느꼈다.

옛 속담에 '불난 뒷끝은 남는게 있어도 물난리 뒷끝은 남는게 없다.'는 말이 있지만 쓸모있게 형태를 갖춘 상품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물의 재앙도 무섭지만 불의 재앙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화재의 요인은 항상 잠재해 있는 것 같다. 정전시 촛불을 사용한다든가, 폐점시에 버리는 타다 남은 연탄재, 전기용품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과전류에 의한 화재 등 알고 보면 화재 예방을 위한 경계 태세는 24시간 전부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여느 시장과는 달리 남대문시장은 대형 시장답게 자체 소방차가 조기 진화를 위해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아무리 외쳐도 지나침이 없을 불조심을 우리는 순간 순간 잊고 사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방심이며 '설마 내 집, 내 점포야 불이 나겠느냐?'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일 것 같다.

오래 전의 일이었다. 내가 타고 가는 승용차에 이상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 수리센터에 갔으나 종업원이 마침 자리에 없었다. 그

래서 내가 우선 먼저 점검해 보기 위해 어두운 밤이라서 라이터 불을 켰으나 너무 멀어서 안보였다.

무의식중에 엔진 가까이 대는 순간 발화가 되어 순식간에 번져갔다. 2~3분동안 타고 있는 걸 지켜보는 순간 연료통의 폭발에 생각이 미쳤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종업원이 소화기를 갖고와 일순간에 진화가 됐다. 다행히도 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정신적인 충격은 대단했다. 소화기의 소중함이란 당해 보지 않고서야 느낄 수가 있을까? 고마운 소화기 덕분에 애차(愛車)를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소화기를 상비품으로 지녀야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앞으로는 갈수록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업무가 바빠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화재의 요인도 다양해지고, 화재 피해도 대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소방 장비도 첨단화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조심하는 습관을 더욱 체질화해야 되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흔히 있지만 화재 사고 만큼은 '외양간을 고쳐 쓸 수 있을 만큼의 흔적'도 남겨주지 않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것이다. 우리 상가는 폐점 후에 발생한 화재라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던 것도 불행중 다행이었다.

이제는 어디에서 이상한 냄새만 나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버릇이 생겼다. ●